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그루터기

2012. 9 월

청년주일을 특별히

제13차 감리교 청년주일은
9월 23일 입니다.

생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동행 [同行]

주최 이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MYFK, Methodist Youth/Young Fellowship in Korea, Methodist Building 13th floor 64-8
Taepyongro-1ga, Jung-gu, Seoul, Korea 100-101 Tel:02-399-2086,2170 Fax:02-399-2199
Homepage:myfk.or.kr E-mail:myfk@hanmail.net Cyworld:club.cyworld.com/MYF2006

2012.9월 (청년주일특별호) 그루터기 목차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
을 본받고 교회의 부흥과 민족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들 극복함으로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
하는 청년들이 모인 만남의 장입니다.

감리교청년회소식지 CONTENTS



삽삽한 글(총무서신) 남기평 총무 3

청년주일자료집 목차 9

청년주일설교#1 신앙의 계승(한성호 목사) 10

청년주일설교#2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김오성 목사) 15

청년주일 성경공부 “동행” 20

나무그늘 김성수 간사 24

다녀왔습니다 #1 “ET 참석기”(김윤지 간사) 26

#2 “사랑나눔체험수련회”(동부천교회) 28

#3 “사랑나눔체험수련회”(목동교회) 31

생일축하합니다/ 사무국소식 33

지역소식을 전합니다 34

그루터기에 생명을 주신 분들 35

제13차 감리교 청년주일은
9월 23일 입니다.

새학기 짝짝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동행 [同行]

♡ 청년주일 이렇게 지켜주세요!

1. 대예배를 청년주일로 지켜 주세요.
2. 청년주일 설교, 청년주일 성서공부를 해주세요.
3. 청년과 관련된 설교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4. 청년들과 식사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5. 청년주일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6. 청년지도력양상을 위해 청년들과 2013년 1월 캄보디아로 워크캠프를 떠납니다.

워크캠프는 우물파기와 도서관 만들기, 화장실 만들기 그리고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 활동 지원을 하면서 선교의 의미를 깨닫고 청년지도력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주일 헌금의 일부를 청년지도력양상에 쓰일 수 있게 보내 주세요. (감리교청년회 : 우리은행 142-422823-13-001)

이벤트 EVENT

감리교청년은 ㅇㅇ다



청년주일 행사 원문에 있는 질문에
가장한 답을 하시고,
감리교 청년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청년주일을 알려라



청년주일을 알리기 위해
홍보를 책임지를 예정입니다.
감리교청년회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청년주일 사진을 올려라



청년주일 포스터를 출력해서 찍은
인물상을 함께 올리시면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 연합회

싸이월드 club.cyworld.com/MYFK2006 문의 02)399-2086, 2170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 총무 남 기 평

자기-질문의 중요성

‘내’가 왜 기독교인여야지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기-질문은 나 자신도 모르게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자기-질문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끊임 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방향키를 견지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건강은 이 시대에 활력을 의미하며 생활력의 유지를 의미합니다. 건강은 지켜야합니다. 타고난 것은 없지요. 특히 여러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나 건강하다는 것은 몸 밖에서 몸 안으로부터 침투하는 세균과 질병들에 거뜰하게 몸이 보호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반면, 주변에 자기건강에 대해 자신하는 사람이나 자기건강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병을 키우고 나중에는 병의 말기에 병을 발견하기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일정부분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차린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신앙인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 정신을 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하게 됩니다. 이를 체감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기-질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답하고 있는가’ 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굳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에 자기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자가진단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병에 대한 정보(경과, 발생하는 방식 등)와 증상에 대해 공부해

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자가진단을 행하는 방식이나 방법을 익히거나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이를 알고 질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다소 길었지만 자기-질문은 정신의 자가진단 방식으로 정신의 건강을 살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정신의 건강을 매우 강조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지요. 스트레스는 쌓입니다. 이 양은 한이 없고 얼마만큼의 양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섭지요.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는 나쁜 에너지를 발산하고 몸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 몸의 이상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지사이지요. 그렇다면 종교인으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이 중 하나가 자기-질문에 대한 부재(不在) 또는 미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질문에 대한 부재와 미해결은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듭니다. 부재와 미해결된 자기-질문은 점점 쌓이게 된다면 회의(懷疑)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답이 없기 때문이지요. 신앙의 회의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고 이 부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신이 부재하고 미해결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자기-질문은 자기진단에 해당합니다. 자가진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정보를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전문가에게 받거나 교육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질문은 대답은 보통 자기-질문에 속해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되는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즉 자기-질문의 해결, 특히 신앙의 자기-질문은 신앙의 선배나 주위의 동역자가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지요. 신앙의 전문적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정의하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경험이 전문지식보다 앞서고 설득력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의 암묵적 동의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설명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는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경험이 이들을 정신적으로 엮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엮임은 복잡하게 엮여있습니다. 엮임의 엮임은 타자의 경험이 간접적으로 나의 경험이 되고 또 다른 타자의 경험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신앙 공동체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험이 엮임과 엮임으로

풍부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이는 나와 타자의 복잡한 역임을 경험하게 되고 자매-형제라는 고백을 경험하게도 하지요. 다양한 타자와의 경험은 자기-질문에 고민하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영향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운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앙의 경험으로 엮인 공동체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설명하기가 힘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시기에 자기-질문을 해결해 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없겠지요. 여기에서의 만남은 서로 다른 세계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즉, 서로 다른 신앙의 세계와의 만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청년이 모인 연합회 활동은 이러한 의미에서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세계의 만남이고 다른 신앙의 세계와의 만남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교회문화와의 만남입니다. 그 결과, 자기-질문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질문이 여러 가지 일 것입니다. 이 질문의 해결 방법이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과 같은 시대의 공유는 이들에게 자기-질문에 대한 물음들은 이들에게 동행을 이끌어 냅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서로에게 책임과 엄함을 가져다주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동행으로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동행’의 사전적 의미는 “길을 같이 감”입니다. ‘길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동행자와 책임과 엄함이 있어야 동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임과 엄함의 방식이 동원되지요. 예를 들면 ‘더불어’ 가는 길에 대화하는 방식이나 주제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더불어 나아가는 것은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은 자기-이해와 동행자의 이해가 동반하지 않으면 동행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쉽지 않고 동행의 방식이 절실한 연합회는 더욱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동행도 쉽지 않은 동행이었습니니다. 하지만 궁극에는 예수가 있기에 가능한 동행이었습니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체와 연합회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동행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13차 청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감청에 있으면서는 6번째 청년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동행의 화두는 전국연합회에게는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리교청년에게 준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자기-질문이기도 하지요.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질문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년주일도 자기-질문이 해결되는 청년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의 의미를 깨닫는 청년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2년을 시작하며 되새겼던 저의 기도를 덧붙여봅니다.

오 주님, 타인들의 필요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들의 불복직임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
 소서. 강자들의 분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들을
 보호하게 해주고, 부유한 자들의 분노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곳을 내게 보이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를 그곳에 생동하게 하소서.
 내 눈과 귀를 여시어
 모든 생명을 위해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 신앙의 인종차별 정제를 위해

workcamp

2013. 1. 7 - 1. 16

감리교 청년회 전국 연합회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가복음 12:31)

제 3차 워크캠프

- ☐ 예수님께서 명령했던 선교의 진정한 의미 발견
- ☐ 이웃사랑의 참의미를 깨닫고 체험
- ☐ 앞으로 감리교 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미를 발견
- ☐ 감리교 청년 지도력이 성장하는 계기



일시 2013년 1월 7일(월)~16일(수)

기간 9박 10일

장소 캄보디아 프레이벙, 베트남 호치민

주최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모집기간 2012년 11월 3일(토)까지

대상 감리교청년

참가비 100만원 예정

참가인원 선착순 15명



하는 일

우물과 화장실 짓기, 방과후 교육활동, 마을 일손 돕기

현지 선교지역 방문

문의 및 신청 감리교청년회 전국연합회

TEL : 02) 399-2086/2170(사무국)

E-mail : myfk@hanmil.net

사이클럽 : www.cyworld.com/MYF2006

청년주일 자료집

청년주일설교#1

신앙의 계승 _ 한성호 목사(부여제일교회)

청년주일설교#2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_ 김오성 목사(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합동총무)

청년주일 성경공부

“동행” _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신앙의 계승

한성호 목사(부여제일교회)

여호수아 2:6-10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소중한 자원입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허리입니다. 기성세대와 다음세대 사이의 연결을 맡고 있습니다. 몸에서 허리가 약해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엔 병들고 죽을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신호입니다. 청년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사라지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년들은 수 백, 수 천 명씩 모이는 대형교회들도 몇 몇 특별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청년, 대학부는 30~4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한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7절 말씀에 의하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10절에는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곧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함으로 한 세대는 믿음의 황금시대를 누렸으나 그 다음 세대는 믿음의 황무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아울러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신앙이 몰락되어 큰 위기에 처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한 세대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전승시대를 이루었음에 반해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신앙의 불모지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세대가 다음 세대 즉 청년과 그 후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함으로서 오는 문제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과 오늘의 시대를 견주어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적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만약 오늘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스라엘에서만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영국이 그러했고 미국이 그러했습니다. 아니 미국과 영국만이 아닌 모든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동일한 과정을 경험했음을 상기해 볼 때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걱정만 하고 있거나 위기만을 논할 때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노력과 최선의 준비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최대의 관심은 청년을 살리는 일입니다. 청년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책임과 일차적인 목표이며 아울러 한국교회가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미래요, 한국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청년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음세대까지 믿음이 계승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를 준비시킨 후 그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해오신 결음이요 발자국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1645년,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롬웰은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1649년, 단 한 표 차이로 영국 왕 찰스 1세가 처형되었습니다. 1776년, 단 한표 차이로 미국은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했습니다. 1923년,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함을 느낍니다. 특히 역사의 혼란기에는 한 사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에 남아 있는 청년 한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니다. 이들이 젊은 세대를 다시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누가 주목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 인간 취급했습니까? 주님은 가장 천해보이는 자, 가장 약해 보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가문도 좋지 않고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내버려둔 돌을 하나님이 들어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교회의 청년들, 많이 모이지도 않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만 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천년 역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 사람 비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 주목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신 후 그 사람을 통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한 사람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약해 보이는 한 청년을 놓고도 하나님이 저를 불드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둘째, 확실한 복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나온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잘해주니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친해지게 되니, 제 안에 그들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 일에는 경건한지 모르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크리스천 맞아?’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기보다는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놀러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청년부 모임을 보면 ‘만나서 시작기도한 뒤, 어디 가서 어떻게 놀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지체들 간의 화합이었고, 그렇게 어울려 놀다가 헤어질 때 마침기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략>... 한편, 저는 유년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년부 내 집사님들께서는 무슨 때만 생기면 청년선생님들이 하라고 떠맡기시고, 못 하면 뒤에서 흉을 보셨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마치 일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만 자꾸 많아지니깐, 정신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지쳤습니다. 내가 교회에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점점 멀리하다가, 지금은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에 의하면 교회 청년회 모임은 일종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모임과 다를 바 없고, 젊다는 이유로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일하다보니 힘들고 짜증이 나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청년 모임에 복음은 없고 친교와 사역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교회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청년 모임에 복음은 없고 교리만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격이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신앙경력이 길던 짧던 상관없이 누구나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죄를 회개하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 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열정이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심어줘야 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양육훈련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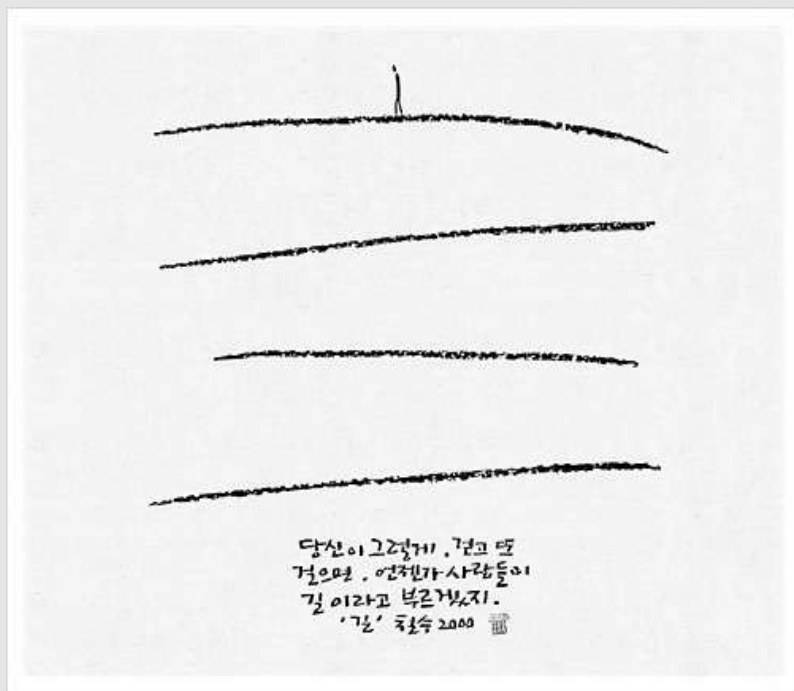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일하고 행하시느라 시간을 다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까지 정성을 쏟으신 것은 별 볼일 없는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닮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력을 쏟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우리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장년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좋은 모델들이 나와야 합니다. 영적 어른이 필요합니다. 영적 어른이 사라진 교회는 위험합니다. 청년들은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도록 계속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양육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훈련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그가 서 있는 영역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킬 젊은 청년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제자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합니다. 우리교회 청년들이 항상 프로그램에 쫓기고 이벤트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제자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청년들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청년들은 봉사하기 이전에 철저한 양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봉사하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마다 청년들이 살아나고,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다음세대로 신앙도 잘 계승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김오성 목사(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협동총무)

시편 133편 1절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나이가 들어 결혼하였으므로 아내와 자식까지 두었고, 동생은 아직 미혼자였습니다. 두 형제는 하나같이 아주 부지런한 농부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물려받은 재산을 똑같이 분배하였습니다. 형제는 수확한 사과와 옥수수를 똑같이 나누어 각각 자기 몫을 각자의 공간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이슬해지자 동생은 '형님은 딸린 식구가 많아 식량이 부족할 터이니, 내 몫을 좀 덜어 드려야지'하고 형님 공간으로 많은 양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형대로 '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 늘어서도 별 걱정이 없겠지만 동생은 혼자 몸이니 미리 저축해 놓아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기 몫을 떼어 동생 공간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날이 밝아 형제는 각기 자기 공간을 가 보니 웬일인지 자기 몫들이 조금도 줄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음날 밤에도 또 그 다음날 밤에도 반복되어 사흘 밤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형제는 전날 밤과 같이 자기 몫을 떼어 상대방의 공간으로 나르다가 그만 중간에서 서로 부딪쳤습니다. 그래 두 형제는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뜨거운 형제애에 그만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알려지는데, 탈무드에 의하면 솔로몬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그 곳에 성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기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요한 등장무대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곳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알려진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후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기 위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팔라고 했을 때 주님의 제단을 쌓기 위한 곳이라는 이유로 댓가없이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번제물로 소를, 화목으로 곡식ძ리는 기계를, 소제물로 밀을 바치려고 했었다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제와 이웃의 관계가 새롭게 재설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행해지는 장소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예배가 행해지는 장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곳임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곤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보시기 위하여 100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여서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해석으로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 횡행하던 시기였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신공양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 해석이던, 새로운 해석이던간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뜨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춘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이전에 행한 일은 인구조사(역대상21장1절)였습니다.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살던 시절에 인구조사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행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인구조사는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였으며, 또한 군사를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초적인 조사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구 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것은 백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긴 처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난 이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려 할 때 오르난이 무상으로 타작마당과 제물을 다윗에게 드리겠다는 것을 거절하

고 금 육백 세겔(역대상 21장 25절)을 치르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타작마당을 대가를 치루고 사는 모습은 징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백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변화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왕과 백성이라는 위계적인 관계가 변화되는 사건을 슬며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변화가,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위계질서의 변화가, 그리고 솔로몬이 감동받았던 사건을 통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행하는 곳에서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양식과 가치들이 그 근본에서부터 변화되는 사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구약성서에서 면면으로 흘러져 내려오며, 예수님께서 압축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기나긴 여정 길에서 함께 이드거니 걸어가기 위한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행하는 일과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길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어느 것 하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재확인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길게 이웃들과 동행하는 길은 자아중심의 에고(ego)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통하여서만 발견되는 ‘더 큰 나’를 깨닫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듯 내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가치들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아중심의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나로 변화되는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 요정이 어떤 농부에게 나타나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소를 한 마리 원하면, 당신의 이웃은 소를 두 마리 얻게 되고, 당신이 금 한 덩어리를 원하면 당신의 이웃은 금 두 덩어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보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농부는 요정에게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요? 한번 상상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한명 떠올려보고, 그 사람과 당신의 관계를 상상해보면서 소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해본 소원들과 이 농부의 소원을 비교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농부는 요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절반만 죽여주세요.”

이 농부의 소원은 자아중심의 에고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

주는 좋은 예화입니다. 자아중심의 예고는 자라면서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모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고, 입는 것을 입고,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아무 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때에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생존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생각이 각인되어 버리면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겨나는 차이에서 어떤 쾌락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쾌락이 생겨나는 과정에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와, 그리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이것은 자아중심의 예고가 느끼는 쾌락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강박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경쟁을 자신의 삶의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내가 서야 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채택해서 살아간다고 상상해보는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나만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시금 깊이 묵상해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내가 추구해왔던 중심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다윗처럼 권력의 위계질서의 변화가, 우애 깊은 형제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있는 곳에 어울려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안학교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십계명입니다.

1.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십계명은 자아중심의 예고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으로 살아가 위해서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지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는 다소간 순응성이 있다는 원칙, 즉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때로는 사물-에 따라 변한다는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경쟁심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반드시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십계명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어울려서 살면서, 아름답고 즐거운 일을 도모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비교우위에서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조금은 더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공글려 보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 이웃들, 지구별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려는지를.....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를.....



하늘 뜻 나누기

청년주일 성경공부

주제: “동행”

본문말씀 : 시편 133편 1절(새번역, 대한성서공회역)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하나 마음 열기

1. 전체 본문 말씀을 소모임 인원만큼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 5명이면 5번)
2. 오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고 1분 동안 침묵으로 묵상해 봅시다.
3. 다 같이 본문말씀을 소리 내어 읽습니다.

둘

생각해보기

1. 우리에게 ‘함께 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2. 동행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그리고 동행은 공동체에게 필수 조건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아니면 왜 안 그런지 얘기를 나눠봅시다.

셋

자세히 바라보기

1. 시편기자는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아름답고 즐겁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가 항상 아름답고 즐거운 것일까요? 아름답고 즐겁지 않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로마서 12:15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함께’에 또 다른 모습이지요. 욥기 30:25에서는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함께’에 다른 모습입니다. ‘함께’는 동행입니다. 소모임 구성원들끼리 동행의 계명을 만들어 봅시다.

예) 우리는 (친구의 아픔을) 함께하며 동행하겠습니다.

1. 우리는 () 함께하며 동행하겠습니다.
- 2.
- 3.
- 4.
- 5.

3. 우리 주변에 함께 동행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누구일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넷

묵상하기

1. 동행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찾아보고 서로에게 성경말씀을 낭송해 줍시다.
신명기 29:15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
는 것입니다.

시편 34:3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로마서 8:22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동행’의 ‘조건’으로 무엇
을 바라고 계실까요?

다섯 기도하기

사랑의 하나님.

'함께'는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은 지키고 아껴야 하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2천년 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지금의 예수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상황을 타하면서 동행을 피하기 일쑤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배움으로써 주변 만물과 제가 속한 공동체와 동행함을 이루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언하여,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갑창' 또한 여러분과 진한 동행의 길을 더불어 걸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남은 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여러 재앙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다가 당하는 일련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려는 현/실/의/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선포 했는데, 마치 꺾어진 나뭇가지와 같이 버려들지 모르나 여전히 [그루터기]에는 수액이 남아 있어서 궁극에는 그것이 “싹을 내며 열매를 맺게 되리라(이사야11:2)”는 것입니다.

결국 그루터기는 현존의 사회현실을 훨씬 초월, 극복하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온 세상에 이루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나무그늘

사랑의 '흔적'을 '삶'에 새기고픈 소망을 가득 담아

— 김성수 간사

‘한 번에 한 사람’ / 마더 테레사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을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미, 그렇고 그렇게 우리네들의 ‘삶’이 내던져진 삶의 ‘풍경’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생명(生命)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망각한 채,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통 ‘큰 것과 많은 것’에 쫓기듯, 살아져서 살아갈 따름임을 조심스레 고백해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늘 묵묵하게, 그리고 작게, 또 보이지 않게, ‘결’에 있는 것임을 늘 잊고서 말이지요. “있을 때 잘하기”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큰 건물에서 사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종교와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 가다보면, 이내 답답해지곤 하면서 과연 사랑과 평화, 정의와 나눔이라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는 자꾸만 예수의 삶과 말, 그리고 그의 삶이 새겨놓은 ‘흔적’을 되새겨 보는 것이 아닐까요. 이미 ‘대중’은 참되지 않음을, 라인홀드 니버라는 학자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통해 그 대중의 우매함을 폭로했지만, 여전히 우리네들의 내던져진 삶의 풍경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놓인 우리들을 위해, 대중을 위해 한 개인의 눈물과 배고픔과 서러움을 외면하는 우리들을 향해, 단 한 사람, 한 개인을 위해 주님의 일을 했노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히 말을 건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칭송을 얻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결단코 대중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이가 있습니다. 감히 상상해보는 것은, 그녀의 눈빛은 아마도 예수의 눈빛과 가장 닮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은 대중이 아니라, 단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을 껴안아야 가장 ‘진실’하게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단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안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그 모습과 풍경은 가장 ‘진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 아흔 아홉 마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양을 위해 오셨던 그의 간절한 눈빛을 감히 떠올려봅니다.

우리네들의 삶이란, 바다에 한 방울의 물을 붓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그러해야 ‘마땅’하겠지요. 우리네들의 삶은, 다만 한 방울의 물을 붓듯,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방울의 물을 붓듯, 정성스럽고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들의 삶은 공허하고 빈약해질 따름입니다.

이미 우리네들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삶에 사랑의 ‘흔적’을 새겨놓은 그이의 눈빛을 떠올려 보며, 우리는 단지, 그저 ‘시작’하기를 소망해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주 작고 연약한, 그리하여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말이지요. 자, 거기 있는 당신! ‘우리’, ‘그저’ 다시 한 번 ‘시작’해볼까요? ^^

다녀왔습니다

#1. “ET 참석기”

— 김윤지 간사



지난 여름,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ET(Ecumenical trekking)를 다녀왔다. 낯선 나를 만나고 몰랐던 나를 알아가는 시간, 나조차도 이름 그 자체로 ET, 외계인이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외계인이 되는 시간이었다. 그곳,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소하고 낯설었기에 그들은 나에게 외계인이었고 그런 생소한 장소에서 모르던 나를 만났기에, 나 또한 나에게 외계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이방인이고 다른 존재였기에 그 사람들에게 난 외계인이었다. 그들과 나, 우린 서로 다르고 낯설었지만 결국 다 같은 외계인이었다. 그것을 체험한 시간이었다. 결국 우리는 '다르나, 다르지 않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하루는 베트남에서 전쟁기념 박물관을 관람하는 시간이 있었다. 고통과 빈곤, 무기와 시체들,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끔찍하게 느껴지고 인간이라는 자체로 죄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다. 전쟁박물관을 둘러보며 또 하나, 나는 옳고 그름을 누가 잘했고, 잘 못했음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누가 갑이나 을이나를 따질 수 없었다. 그들을 이해한다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를 깨달았다. 우리에게 서로 다른 입장과 정의가 있다. 그것은 본질적인 뜻은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생활 방식과 삶의 터전과 상황이 같지 않았기에 서로에게 가지는 의미와 방식 또한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같은 존재이지만 다르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에 이해 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조차도 나의 입장을 '이해해야 해줘



야 하는 입장.'에 올려놓는 것 같았다.

나의 정의와 다른 누군가의 정의가 서로에게 폭력으로 돌려질 있음을 수 보았다. 전쟁, 빈곤 그리고 나를 마주하고 보니 나의 인생이 꼭 나만의 것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나, 그대, 자연 이 모든 것들과 이어져 나의 인생이 아닌 우리의 인생, 하나의 인생을 나누어 살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자신에게 휘두르는 폭력이라는 생각에 피하고 외면하고만 싶었던 마음이 참 무서운 생각이었구나 싶었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결국 나의 익숙한 곳에 돌아오니 한 순간의 도움 같지 않은 도움보다는 언젠가 되더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걸 믿으며 그들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으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라는 희망으로, 내 내면에 귀기울여보며, 이 정체모를 불편함에서 벗어나려는 내 모습을 솔직하게 마주하련다.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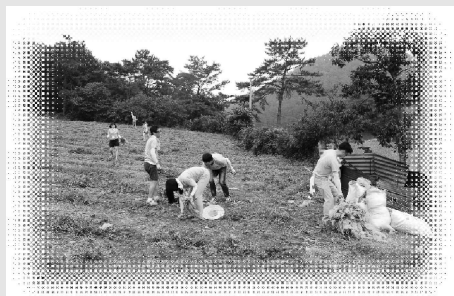
#2. 사랑나눔체험수련회

— 중부연회 부천남지방
동부천교회
하수지 자매



10대 시절부터 20대 시절까지 수련회라는 말은 나를 참 설레게 한다. 근데 수련회라는 설렘은 여행이 주는 설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오로지 우리교회에 10년이 넘은 보라색 봉고차만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차에 탄 나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부만이 줄 수 있는, 그리고 아마 봉고차 두 번째 줄 가운데에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설렘이다.

그런 설렘을 안고 수련회를 출발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산에 있는 뽕앰교회. 2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30명 남짓이었다. 우리는 도착해서 맨 처음 마늘 밭, 감자 밭 일손을 도와드렸다.



밭에 있는 비닐을 벗기는 작업이었는데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모두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일하는 상황이 되었다. 말로만 농사일이 어렵다고 들었지, 실제로 해보니 젊은 청년들이 하기도 힘든 이 일을 어떻게 어르신들이 혼자 하실까 라는 생각에 존경심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너무 지치고 싫어서 도망치듯 수련회에 온 나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였다. 내가 하



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일에 비하면 숨쉬기 운동만큼 쉬운 일이구나라고 느꼈다. 그리고 돌아와 방과 후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도시도 아닌 시골에서 이렇게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 기쁘기도 하고 보기 좋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나만의 시각에서 일뿐 사실 아이들의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부모

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밥도 챙겨주지 못해 라면만 먹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는 아이,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과 살지 못하고 이곳에 사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아이 등 다들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의 상처를 기회로 만드시고 오히려 그들을 크게 쓰실 하나님이지- 라는 생각에 한 명한 명 축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그 외에도 교회부엌 확장을 위한 삽질과 시멘트 나르기, 그리고 팀을 나누어 마을을 돌면서 농사일 하고 계신 어른들께 전도하기 등등 2박 3일 동안 그곳 어르신들께 또한 베엘 교회에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베엘 교회의 목사님도 부엌확장을 해야 했었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청년층이 없어 엄두고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시고 전도를 하기 위해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의 모습을 좋게 봐주신 어르신들께서 꼭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다.

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셨다고 생각한다.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겠니?” 라고 물으시며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은 것이다. 그것이 ‘동행’이다.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



가는 것이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같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이라고 생각한다. 수련회 기간 동안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것도 내가 지금 이곳에 속한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각자 모든 것이 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 한 가지 공통점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훌륭한 동행자들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함께 하는 동행자들...그리고 서로 마주잡은 손. 그리고 그 손끝에 하나님이 그려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며 물을 것이다.

“나와 함께 가겠니? 걱정 하지마. 내가 같이 가줄게.”

10대 시절부터 20대 시절까지 수련회라는 말은 나를 참 설레게 한다. 근데 수련회의 끝이 주는 설렘은 수련회의 시작이 주는 설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오로지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몸과 마음이 가득 차야지만 받을 수 있는,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우리들만이 받을 수 있는 설렘이다.

하나님과의 또 다른 동행이 시작된 것이다.



다녀왔습니다

#3. 사랑나눔체험수련회

— 서울남연회 양천지방
목동교회 청년부



좀 시간이 흘러서 그 감동을 표현하기엔 부족하겠지만 몇 줄 써봅니다. 국내선교라는 명목으로 사실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교동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신 집사님을 도와주고 성경학교의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많은 비로 재해를 입은 군산이나 기타 등지의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청년의 때에 그런 역동적인 전도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한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재 청년

우선 교동이라는 멋진 곳에서 우리 목동감리교회 청년부가 국내선교로 섬길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예쁜 아이들과 함께했던 여름성경학교, 부족하지만 작은 손길 하나하나 모아 농촌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항상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호 청년



교동을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의 헌신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촌일손돕기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연동현 청년



‘교동도에서의 3박 4일’은 올해 정말 보람차고 행복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에 있던 시기에 교동이라는 섬에서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저의 신앙에 영향을 주었던 귀한 시간이라 생각되며,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 한 여름성경학교, 그곳의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한 농활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값진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나의 농작물을 위해 농부들이 흘리는 땀방울들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농부가 정성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 땀, 단비를 내리시길 친히 기도하시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 뿌리가 있을 땀, 정성스런 손길로 하나하나 뽑아주시는 것 같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한 농활, 행복한 수련회였습니다. -권기훈 청년

이번 수련회를 가면서 “하나님의 때(시간), 들(장소), 떼(공동체) -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소망하며 가게 되었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심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들과 처음 뵙는 교역자, 어르신들과 하나 되는 시간,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무언가를 주고 베풀고 왔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상진 목사

생일축하합니다

[9월]

윤창우9.9 황지현9.9 정수민9.17 김준규9.19

[10월]

박수인10.3 홍길수10.10 이국노10.14 이은표10.21 황득한10.25
한시내10.26 김은선10.28 진광수10.31

사무국소식입니다

[제7차 감리교청년체험수련회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2012년 6월 19일 개인 참가팀을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두 달여 기간에 걸쳐 17개의 팀 약 470여명의 감리교청년들이 강화, 충청, 경남지역의 농촌마을과 교회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을 돕고 어르신과 아이들과의 만남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이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해 주신 분들, 더욱이 몸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꾸벅^^

[55회기 제2차 중앙위원회]

2012년 8월 21일 화요일, 많은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전국·지역 임원들이 두 번째 중앙 위원회로 감청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각 지역의 사업과 소식, 고민들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함으로써 감리교청년연합회를 ‘함께’ 이루어감을 다시금 되새기며 힘을 북돋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연대활동/캠프]

2012년 8월 6-8일 평화캠프(고난함께), 8월 6-9일 제주평화기행(KSCF), 8월 20-23일 종교 평화캠프(KCRP)에 사무국 식구들이 각각 참여함으로써 여러 교단과 종단에 있는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록 종교나 교단의 다름은 있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음을 조금은 알게 되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역소식

- [성북지방]

- 지방 연합회와 계획 중인 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구로지방]

- 올해 연합회 임원이 없고 어려운데, 내년에는 연합회 구성과 활동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 [중앙연회]

- 사무국 - 준비중인 CCD, CCM 대회를 위한 기도해 주세요.

- [이천남지방]

- 바자회(10월 둘째 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천중앙·남·북지방 청년연합회]

- 9.22(토) 늦은 6시에 청년주일기념 '레노바레 찬양집회'가 무촌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 [삼남연회]

- 청년주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원주동·서·남지방 청년연합회]

- 9월 22일 토요일 늦은 6시 청년주일기념 연합찬양집회가 있습니다.

< 그루터기에 생명을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

☐ 6월 C·MS 후원해주신 명단

강운정 고아름 구수현 권혁률 김기태 김도연 김선배 김성수 김영락
 김영란 김윤지 김은선 김준규 김준홍 김지혜 김형일 남궁희수 남기평
 민형준 박달래 박수인 박승복 박정환 배이삭 송병구 송성민 안복규
 유영대 유재수 윤창우 이국노 이상호 이영주 이은영 이은표 이재훈
 이종명 이진영 이현락 장소망 정수민 정유은 정인혁 조선녀 조재국
 조화순 진광수 차흥도 최병천 최현길 하성웅 한시내 허지행 황득한
 황정아

☐ 7월 C·MS 후원해주신 명단

강운정 구수현 권혁률 김도연 김선배 김성수 김영락 김영란 김윤지
 김은선 김주영 김준규 김준홍 김지혜 김형일 남궁희수 남기평 민형준
 박달래 박세현 박수인 박승복 박정환 배이삭 송병구 유영대 유재수
 윤창우 이국노 이영주 이은영 이은표 이재훈 이종명 이진영 이현락
 장소망 정수민 정유은 정인혁 조선녀 조재국 조화순 진광수 차흥도
 최병천 최소형 최현길 하성웅 허지행 황득한 황정아

☐ 8월 C·MS 후원해주신 명단

권혁률 강운정 박유진 구수현 김선배 김성수 김영란 김영락 김윤지
 김은선 김주영 김준규 김준홍 김지혜 김형일 남궁희수 남기평 민형준
 박달래 박세현 박수인 박승복 박정환 배이삭 송병구 안복규 유영대
 윤창우 이국노 이영주 이은영 이은표 이재훈 이종명 이진영 이현락
 이효성 장소망 정수민 정유은 정인혁 정현국 진광수 조선녀 조재국
 조화순 차흥도 최병천 최소형 최현길 하성웅 허지행 황득한 황정아

퍼낸 날 2012년 9월 3일 **퍼낸 이** 남기평 **엮은 이** 사무국 **편집한 이** 김성수

퍼낸 곳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주 소 서울 중구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3층 **연락처** 02.399.2086/2170

FAX 02.399.2199 **누리집** myfk.or.kr **전자우편** myfk@hanmail.net